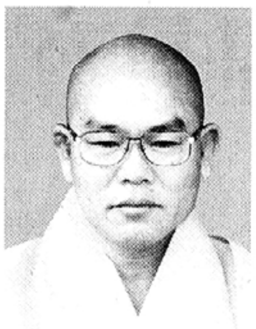
"지계정신 살아야 청정승가 구현"

'사분계본' 강의 영산율원장 철우스님



"계는 수행의 근본입니다. 지난해 종단분규는 승가의 계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비구스님들을 대상으로 〈사분계본〉을 강의하는 철우스님(조계종 영산율원장)은 승가의 수행은 지계의 바탕위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사분율의〉는 경·율·논장 가운데 승려가 지켜야 하는 계율을 기록한 60권 1질의 율전으로 비구 2백50계와 비구니 3백48계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그중 〈사분계본〉은 수계를 받을 때 익히게 되는 비구 2백50계의 명칭과 의미를 간추린 것.

94년 곡성 태안사에서 해인율원장 종진스님에 의해 첫 강의가 이뤄진 후 5년만인 이번에 〈사분계본〉 강의가 재개된 것은 종단에서 계율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했기 때문.

수강을 신청한 스님은 20여명. 지계정신이 살아있어야 청정승가가 이룩된다고 강조하는 철우스님은 "내년부터는 교육원의 협조를 구해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보다 많은 스님들에게 율장의 진의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교차로

역경사업비 4천만원 전달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12일 서울 관문사에서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에게 한글대장경 역경사업 지원비 4천만원을 전달했다.

진부포교원 유치원 개원

현해 월정사 주지는 진부포교원 및 부설 연꽃유치원·연꽃어린이집 개원법회를 28일 유치원 대강당에서 거행한다.

나라와 국민위한 기원법회

동광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도선사 주지) 스님은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경찰청 1층 기내식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 및 청장취임축하 기념법회'를 거행한다.

보현도량 제3대 회장에

법성 前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스님은 지난 9일 보현도량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中 선종사찰 한달간 답사

자명스님(시인)은 최근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26일부터 4월26일까지 홍인·혜능스님 수행처와 선종사찰을 답사한다.

뉴욕 전등사서 합동 천도재

일운 영산재 준보유자 스님은 19~22일 뉴욕 전등사에서 합동천도재를 집전했다.

한국설법연수원 개원

김철회 前 태고종 신도회장은 실기훈련을 위주로 하는 '한국 설법연수원'을 서울 교남동에 개원하고 4월1일부터 2개월과정의 강좌를 연다.

대만 광덕사 학술회의 참석

홍윤식 동국대 교수(역사교육)는 15일부터 17일까지 대만 고웅현 광덕사에서 정각불교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문화예술인법회 회장유임

김흥우 한국문화예술인법회 회장은 최근 열린 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유임됐다. 김회장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 서울 필동 충정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동국대 국문과 겸임 교수에

이상문〈사진 위〉·이원규 소설가는 15일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위촉됐다. 이상문씨는 장편소설 〈황색인〉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이원규씨는 〈황해〉 등으로 분단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본사, 용성후원회에 감사패 전달

본사 김광삼사장은 18일 3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대각사 초하루 정기법회에서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장 한명옥씨(불명·수승행)에게 최정회 편집국장을 통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감사패는 본지가 지난 '98 사진 영상의 해를 맞아 지리산에서 금강산까지 백두대간의 줄기를 현장취재하며 그속에 깃든 불교문화를 조명한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연중기획을 적극 후원한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생명 소중함 일깨웠으면…"

묘목 보시 정승연 다례원장

"나무묘목나누기는 온국토를 푸르게 장엄하는 생명방생운동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에게 무료로 나무묘목 나눠주기운동을 펼치는 다례원 정승연원장은 "나무묘목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단순히 식물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자는 공동체적 서원을 담고 있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생명사상을 전파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정 원장은 "부처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생명의 싹인 묘목나눠주기 운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군포교 전불자 관심가져야"

22년 군종법사 회향 강남석 前 군승단장

"군종교구본산제의 확립과 군법당 건립지원, 전역 군종법사들의 계속활동 보장 등 군포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는 28일 충남 논산 계룡대에서 전역식을 갖는 강남석 前 군승단장(49·대령·해군 군종감)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군포교에 대한 종단 및 불자들의 인식전환과 애정을 간곡히 당부했다.

교회에서 푸짐한 위문품을 줄 때 초코파이 조차 선물하지 못할 때가 가장 안타까웠다는 강법사는 15만명에 달하는 장병 불자들이 전역한 후에도 일요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76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이후 77년 함대 항공단 군종과장을 시작으로 22년간 군승법사의 외길을 묵묵히 걸어 온 강법사는 95~97년 제20·21대 군승단장을 역임하고 97년부터 해군 군종감을 끝으로 외롭지만 보람찼던 군포교 사업을 회향했다. 현재 원광대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에서 연구중인 강법사는 수료후 포교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양성에 전념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정책대안 개발 재정자립 역점"

전불련의장 배영진씨

"경계와 감시부분을 철저히 하여 불교이미지 실추방지에 앞장서겠습니다"

17일 전국불교운동연합 총회에서 신임의장에 선출된 배영진씨(前 대한불교청년회장)는 재가신도로는 처음으로 의장에 선출됐다.

"청년활동을 해오며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다"는 배의장은 "창립후 전불련이 견지해 왔던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연관 단체와 연대사업도 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불교계가 사회적인 관심과 해결에 있어서 미진한 면이 많았다며 활발한 시민운동을 통해 불교세를 확장하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배의장은 그동안 재야불교단체들의 취약점인 재정자립을 이루고 활동의 자주성도 임기중에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동국대 인사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5일 부속기관장 및 연구원장급에 대한 신임인사를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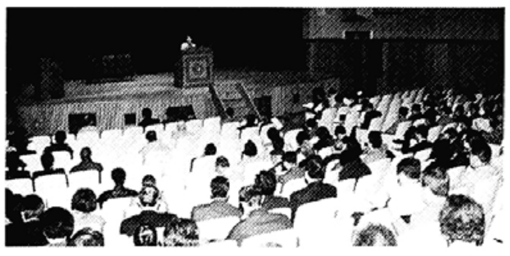
△불교문화연구원장 목정배 교수〈사진〉 △자연과학연구원장 김혜중 교수 △산업기술연구원장 백수현 교수 △한국문학연구소장 임기중 교수 △교육연구원장 유시규 교수 △과학관장 노완섭 교수 △보건소장 김경호 교수 △실험농장장 김경제 교수 △비구니수행원사감 혜원스님 △컴퓨터교육원장 조암 교수 △학생생활상담센터소장 정진환 교수

불자가수 김안수

새앨범 '길림성 편지'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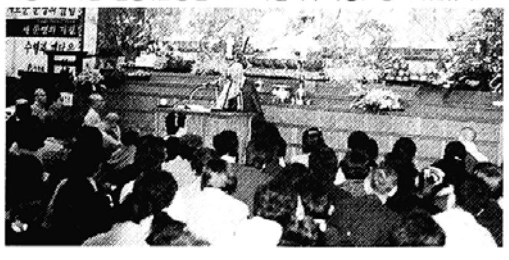
불자가수 김안수씨가 새 앨범 '길림성 편지'를 내고 본격적인 가수활동에 나섰다. 할머니 가수로 널리 알려진 김안수씨의 이번 앨범에는 남국인씨가 작곡한 노래 10곡이 들어있다. 양로원 등 불우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찾아다니며 무료 위문공연 봉사를 하고 있는 김씨는 사찰이나 노인시설에서 불러주면 언제든지 찾아가겠다고 밝힌다. (02)476-3233

이경숙 기자



조계종 포교원 포교사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스님)은 99년 포교사 정기연수(서울·경기지역)를 1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기연수회에는 포교원장 정련, 포교국장 법경 스님과 포교사 4백여명이 참석했으며 포교사단의 회고와 전망 및 대안(백남석·하영태)에 대한 제의와 포교사제도 개선방침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설명(임동현 포교사단사무국장)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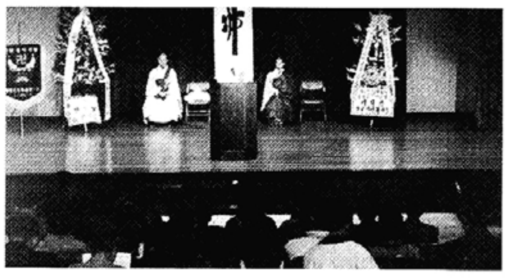
정토회 깨달음강좌 '100일 법문' 입재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는 14일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100일 법문'을 시작했다. 이번 강좌에서 '부처님 정법이 이 땅으로 이어지다'를 주제로 첫 법문에 나선 도문스님(대성사 주지)은 "불제자들은 수행에 정진해 혼탁해진 세계를 맑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종 총무원장 학봉스님 진산식

조동종 제5대 총무원장 학봉스님(원효사 주지) 취임법회가 12일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호텔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운과 종정, 지명 승정원장, 송봉 중앙감찰원장 등 조동종 간부스님과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 관음종 홍파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 및 신도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빛은행 부산불자회 창립법회

상업은행불자회와 한일은행불자회가 합병해 창립된 한빛은행부산불자회는 14일 부산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 양정청소년회관 관장 범산스님을 비롯 1백여명이 함께 했다. 정관스님은 법어를 통해 "원력과 정진을 통해 마음의 무량한 빛인 무량광 '한빛'을 성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 1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밀교종단으로서 불교관련 다양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불교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특히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진각논문대상'을 신설하여 논문을 공모코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주제 : ①불교 일반 (불교 교학, 불교사, 불교관련 응용분야)
②밀교 일반(밀교 교학, 밀교사, 밀교관련 응용분야, 진각종 종학 등)
▷응모자격 : 제한없음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전형일정 : ① 접수마감 : 4월 24일(우편접수 만)
② 1차 합격자 발표 : 5월 1일
③ 논문계획서 발표회 : 5월 10일
④ 최종 논문 작성자 6명 선정 : 5월 중순
▷당선작 및 상금 : ① 불교·밀교 분야 각 우수작 1편, 가작 2편
② 우수작 - 상금 200만원, 가작 - 상금 100만원
▷접 수 처 : 136-132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jingak.or.kr
e-mail : purusa(천리안) / purusa@chollian.net
전화 : 02)913-0133~4 / 팩스 : 02)913-0135

대 한 불 교 진 각 종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3. 강의시간 주 4일 수업 (19:00~20:00) 화, 수, 목, 금
4.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 년		교 육 과 목		
1 학 년	1 학 기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2 학 기	◇대승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2 학 년	1 학 기	◇불교문화의 이해 ◇초기대승불교	◇비교종교 ◇반야사상	◇부파불교 ◇유식사상
	2 학 기	◇기신론 사상 ◇선사상	◇천태 사상 ◇정토 사상	◇화엄 사상 ◇불교교리 발달사

※ 매주 의식교육 실시 ※범패의식 특강 (동·하계 스쿨링때는 범패의식 교육)
※ 교수진 :
권기종교수, 조용길박사, 권탄준박사, 장회옥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김사업박사, 김종명박사, 법현스님 (동국대교수 9명), 강건기박사(전북대교수)

5. 원서교부 3월·8월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6. 제출서류 ◇입학원서(반명함판사진 3매)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